

과외 구하기 Tip

&

성공적 과외 Tip

2021. ver

본 자료는 무료배포용입니다.
밑줄이 쳐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래 주소에서 구매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orbi.kr/docs/7078>

위 주소에 있는 자료를 무단유포시 출판물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보자에게 합의금의 25%를 드립니다.

1. # 프롤로그

- 필자의 과외 입문기
- 왜 우리는 과외를 해야하는가?

2. ♪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걸 울의 한의 성의

- 과외 구하는 곳
- 과외 사이트 소개글 (+첨삭)
- 과외 구하는 시기

3. 🤝 널 놓치고 싶지 않아

- 전화상담 요령
- 시범수업
- 페이 결정
- 학생과 강사의 궁합

For All

Bonus Track 1. 과외추천교재

Bonus Track 2. 등급별 수학공부법 (교수법)

Bonus Track 3.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학생편

Bonus Track 4. 개인 제작자료의 중요성?

Bonus Track 5. 과외 vs 학원 vs 독학

자료 읽는 법)

본 자료는 **학생(학부모)에게 도움될 말**과 **대학생(강사)에게 도움될 말**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도움될 말은 검은색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생(강사)라고 해서 파란색 글씨를 안읽는 건 본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을 때 최고의 궁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란다.

조언)

본 자료는 양이 꽤 된다.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괜찮다. 말리지 않겠다. 근데 감히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이 정도 시간도 투자 하지 않을꺼면
과외는 못한다고 봐야한다. 대학생 때의 과외는 수업 시간만큼 준비 시간이 들어가 정상인데,
1~2시간도 안될 시간을 투자 못하고 '세줄 요약점크' 하는 태도로는 과외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낼
수 없다. 학생들은 반드시 이 자료에 들어있는 요건을 갖춘 강사에게만 수업을 받길 바란다.

강사 선택하는 법)

간혹 학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은 하위권이던 시절 있으신가요?'
이 질문의 이유는 뭘까? 우리 아이가 하위권이라, 하위권에서 최상위권이 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권의 마음은 하위권이 제일 잘 아니까, 무엇에선가 막혀있는데 그걸
뚫어본 사람을 구하는 것일 거다.

음,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맞는 말 일리가 없다. (라임 지림, 라임 질임, 이것도 라임 지렸다.)

15살 때 부터 수학을 잘하여 8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23살 A와
19살 때 까지 수학을 못하다가 21살 때부터 수학을 잘하여 2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23살 B를
B교해보자.

다년간 노하우가 축적되고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본 A는 하위권 역시 많이 가르쳐봤을 것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하위권에 대한 이해도'는, 직접 본인이 경험 및 극복해보지 않아도 다수의 수업
등의 간접적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각 학생 성향별 어울리는 선생님 스타일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1. # 프롤로그

- 필자의 과외 입문기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어쩌면 수학선생님이 내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학창시절을 지냈다. 중학생 때부터 수학에 자신 있었으며, 특유의 사교성으로 친구들에게, 심지어 동아리 선배들의 수학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좋아했었다.

당연히 남들처럼 고3 끝나고 명문대를 가서 과외를 할거라 생각했던 필자는 재수를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고려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과외 시작은 쉽지 않았다. 고2 때 한 전학(울산→서울)으로 인해 서울의 인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토박이의 경우 좋은 대학을 가는 순간 그 지역 내에서 (적어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명해져서 과외가 잘 잡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과외황이 되었는가? 왜 나는 군대에 있을 때마다 ‘과외 어디서 구하셨는지 새내기들이 궁금해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라는 동 구원 요청을 솔하게 받았는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왜 우리는 과외 해야하는가?

복습하자. 학생(학부모)에게 도움될 말과 대학생에게 도움될 말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

과외의 최고 장점은 무엇일까? 높은 시급? 아니다. '익숙한 것'을 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중고딩 6년 동안 내신 또는 수능을 준비해왔다. 즉, 지금 당장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건 공부다.

전단지 알바, 카페 알바, 피시방 알바 등 타 알바를 하려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배워서 하는게 많은데 과외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다.

명문대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시급 2만원 이상을 주는 과외는, 학원비에 비해 분명 비싼 수업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외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음에 있다. 대형수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보충과외, 빠르게 약점을 손보고 싶은 단기과외 등이 있다.

많은들 '과외만 하면 수능 성적 오지게 오르겠지?' '수능 만점한테 과외 받으면 나도 만점 각?' 라고 착각한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학생과 강사는 각각 '기본 속력'과 '부스터'으로 비유된다.

(벡터 외적으로 비유하면 괄쌈한데, 문과친구들을 위해서... ㅠㅠ)

좋은 강사일수록 좋은 부스터, 즉 차에 정확한 방향과 곱가속도를 제공한다.

근데 학생이 기본속력을 0으로 잡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곱가속도를 갖고 있는 차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다. 아래에 좋은 예시 짤이 있다.



수익 0원에서 수익이 100배만큼 오르신 ???씨

따라서 학생은 본인이 오롯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구하도록 하자.

2.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걸 울의 한의 성의

- 과외 구하는 곳 (인맥, 친인척 소개 등 뻘한 방법은 소개하지 않겠다.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

ㄱ. 전단지 or 아파트 광고 전단지

제일 무난한 방법이다. 필자도 첫 과외를 이것을 통해 구했다.

관리실에 접수를 하면 A4용지 한 장 분량을 매 동 1층에 붙여주시고, 비용도 얼마 하지 않는다. (과외 구하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소소한 방법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맨 위에 수학과외 크게 적고, 아래는 본인 번호를 잘라갈 수 있도록 문어발식 디자인하면 자기소개를 할 칸은 A4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거기에 본인의 특징점을 요약/압축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수업할 과목에 대한 얘기만 하는게 중요하다. 수학 과외를 하는데 본인이 과학탐구대회 몇 등한거, 수학 외의 타 과목 점수? 별로 궁금하지 않고 쓸 양이 매우 적다. 본인 소개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쓸 예정이다.

그런데 위의 말을 종합하면 강사의 정보를 정말 한정된 분량으로만 얻을 수 있고, 속된 말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광고수단이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더 나은 강사를 찾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이든 강사이든 이 방법으로 과외를 구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는다.

ㄴ. 학원 알바 시작하기

과외 구하려고 글을 읽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냐고 화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전략은 상당히 주효하다.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담감이 과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정식 커리큘럼이 없이 단순 질의응답만 해주면 되고, 막힌다 하더라도 최종보스인 학원 쌤이 대신 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보수는 과외에 비해 30%~50%에 그칠 수 있지만 본인은 현재 초짜임을 상기해보면 나쁘지 않은 시급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학원 알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교수방향이 결정되고,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이유로, 학원 진도를 따라가기 벅찬 학생들의 클리닉 수업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즉, 본인의 실력을 이용하여 없는 인맥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 말이 학원의 고객(학생)들을 배내가라는 소리가 아니다. 과외의 유혹이 왔을 때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나의 구슬림에 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과외를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어야 한다. 상도덕을 지키는 자가 상도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위의 말들을 종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말로 번역하면, 가르치는 경험이 전무한 대학생은 과외쌤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적어도 학원알바를 경험한 대학생으로 고르기 바란다.

ㄷ. 과외사이트 활용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다면 오르비 과외시장, 김과외, 튜터커넥터 등 여러 과외사이트를 활용해보자. 내 경험을 알려주자면, 내 모든 과외는 오르비 과외시장 단 한 군데에서만 구해졌다. 이는 한 군데를 정성스럽게 꾸며놓고 꼼꼼하게 본인어필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 정보를 흩뿌려놓는 것 보다 효율적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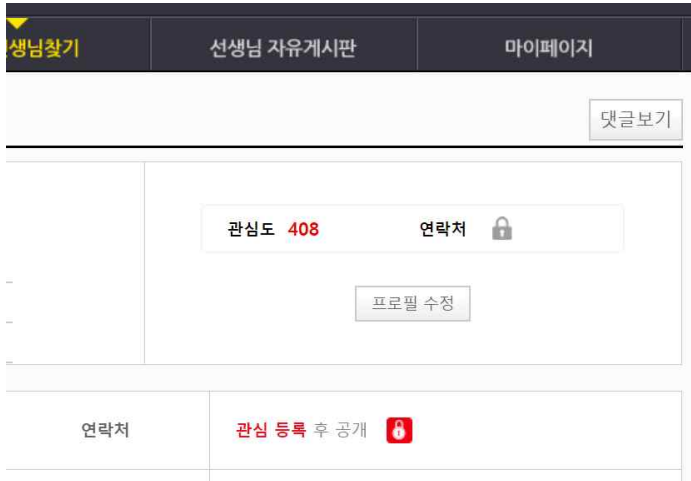


사진: 오르비 과외시장에서 받은 연락 수이다.

(나는 학생에게 先 연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군대에 있으면서 원인 모를 이유로 200명대에서 50명대로 떨어졌었는데, 전역 후 재모집된 숫자다. 총 합해보면 군대포함 7년간 약 600명, 1주일에 2명 꼴로 관심등록이 들어왔단 뜻.

지금은 유명한 편이지만 그 당시엔 흔하디 흔한 SKY 학부생 중 한명일 뿐이었다.

이런 학생이 한 사이트에서만 200여명의 학생들의 관심등록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아니라면 미안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었는가? 약을 잘 팔아서?

아니. 나는 그런 사교육쟁이들을 정말 싫어한다. 사교육도 사교육 나름이다. 여러분은 강사에게 수업을 받아야지, 돈만 밝히는 약팔이에게 수업을 받아선 안된다.

관심을 끈 주요 요소 딱 세 개를 고르라면

탄탄한 실력, 화내진 양을 외모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모범생 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개글★ 이다. 대학생 신분으로 필자만큼 실력 있긴 힘들다. 외모도 사람간 차이가 있으니 Pass. 그럼, 우리가 비벼볼 수 있는 건 소개글이다. 아들을 둔 대치동 수학강사에게 아들 과외 제안도 받을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의 이목을 사로잡은 소개글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과외 사이트 소개글

㉠ Spec 소개

먼저 머리글엔 본인의 스펙을 소개한다.

이 때, 본인이 수업하려는 과목에 관한 내용만 쓰는데 중요하다.

수학 과외를 구하는데 본인이 다른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한 과외선생님에게 여러 과목을 맡기는 건 좋지 않다. 차라리 종합학원을 가는게 낫다.)

또, 추상적인 내용을 적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은 수탐2 모두 1등급 (백분위 100%, 99%, 99%) 로 국가 이공계 우수장학금을 받았었다. 근데, 이 장학금의 수령조건을 대부분은 모른다. 그럼 또 그걸 소개해야하고, 자연스럽게 소개글이 길어지고, 읽는 사람은 슬슬 지친다. 즉, 본인의 특징점이 부각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학부모에겐

(논술합, 수능 100점, 수학경시 전국권 입상, 이공계 우수장학금)

보다 Only 서울대 공대 하나의 스펙이 더 낫다고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된 것을 강조하려 노력해야 한다.

㉢ 교과 전문성 강조

본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교과의 전문성 어필을 하는게 좋다.

난 그 시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게 중요한데, 이 때 이것을 과장해서 적다보면 이전에 절대 되지 말자고 했던 약팔이가 된다.

최대한 담백하게, 하지만 학생(학부모)들이 절대 신뢰할 수 있게끔 요점을 강조하는게 좋겠다.

㉣ 간략 커리큘럼, 학생 수준별 수업목표전략 세우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대부분 초짜 과외강사들에게 '우리 애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저에게 맞는 커리큘럼 추천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어찌 대답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강사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과외를 일반 알바로 생각하는 순간, 일반알바해서 버는 만큼만 벌 수 있다.
과외가 고소득 알바인 이유는, 그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명확한 강의 디렉팅에서부터 시작된다.

탄탄한 커리큘럼?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럴거면 전문강사와 다를 점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수업의 방향성과 커리큘럼을 세워두자.

★ 친근함만 강조한 소개글

친한 언니, 오빠처럼 가르치겠다... 라고 하는데...

다들 친한 언니, 오빠처럼 가르치지 못하고 나빠쳐먹은 언니, 오빠처럼 가르칠 선생님들은 없다.

즉, 학부모 입장에서 이것은 옵션일 뿐 결국 잘 가르치는 강사를 원한다.

굳이 안쓸 이유는 없지만, 이것만 강조해서 쓸 이유 역시 없다.

★ 본인 자랑(스펙)만 써놓은 소개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내용 없이 본인 자랑만 해놓은 소개글도 매우 비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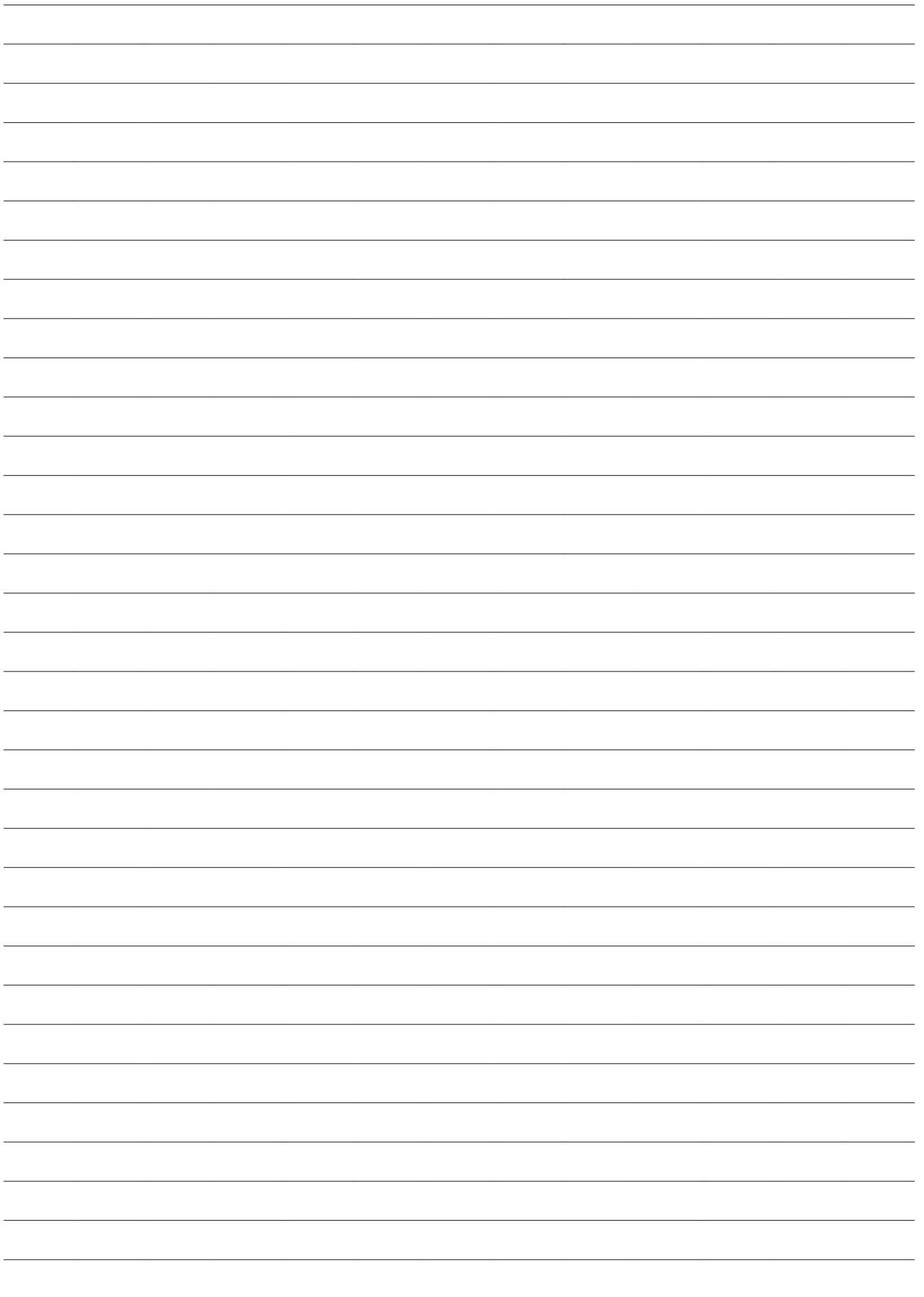
모든 분야에서 전국 1등이 아닌 이상, 항상 내 위엔 누군가가 있다. 스펙만으로 전국 2위여도,

결국 1위에게 밀린단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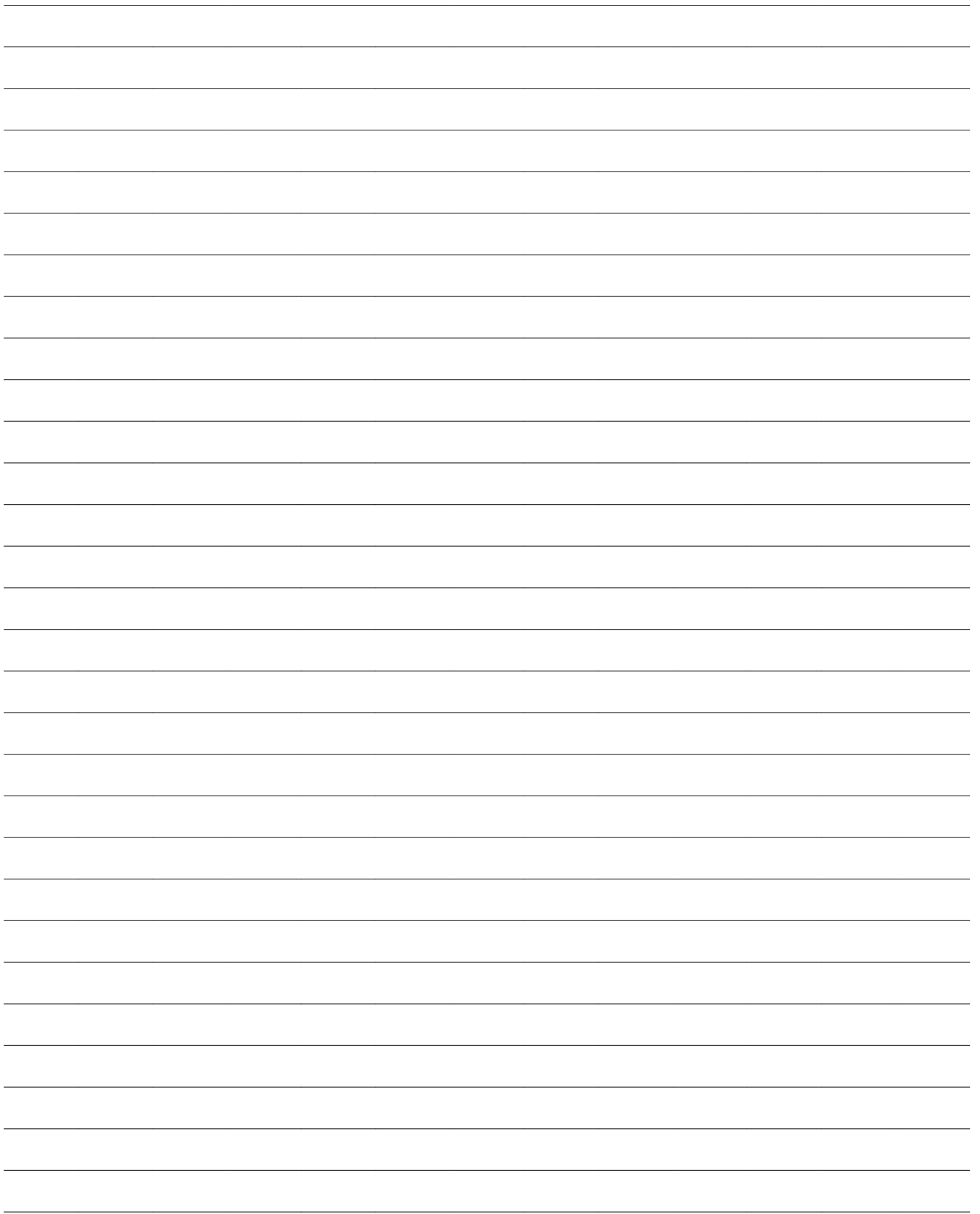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스펙은 의미가 없다. 수능 수학 3등급 학생이 과외쌤을 구하는데 수능

100점 경력 있는 쌤 이면 충분하지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까진 필요가 없단 뜻이다.

스펙 이외에 다른 쌤들과 차별된 점을 부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







- 페이 결정

ⓐ 페이는 보통 시급제 및 횡수제가 제일 깔끔하다.

한달에 얼마! 같은 경우 공휴일, 학생 측 가족행사 등으로 휴강을 하거나 요일조합이 바뀌어 8회가 아닌 9회가 있는 달도 있어서 매우 애매한 면이 있다.

시급을 3만원으로 잡고 예를 들어보면, 2시간 수업 8회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업당 6만원, 8회당 48만원을 받으면 된다. 3시간 수업 8회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3시간 수업이라고 수업당 $3*3=9$ 만원! 하면서 받는건 융통성이 없는 행위.

보통의 과외들은 강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이동시간이 붙게 된다. 왕복시간을 1시간으로 잡자.

2시간 수업을 하게 될 경우 본인 기준 할애해야하는 시간은 3시간이 되고, 3시간 수업을 하게 될 경우 본인 기준 할애해야하는 시간은 4시간이 된다. 즉, 1.5배가 아닌 1.3배의 시간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엔 약간의 에누리

(ex. $9\text{만원} * 8 = 72\text{만원}$ 인데 숫자가 안이쁘니 70만원, 또는 쿨하게 65만원)

를 해주면 학생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고, 강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시간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렇게 수업료를 할인해주면 시간선택권이 자연스럽게 강사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대학생 강사라면 피치 못하게 생기는 갑작스러운 퀴즈, 시험 등 때문에 시간변경을 해야할 때 같이 미리 쌀 똥을 대비하여 이전에 선심을 베풀어두면 '덜 미안'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똥싸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항상 과외엔 다른 알바보다 막중한 책임감이 잇따름을 명심하라.

학생이 선생 쪽으로 오는 수업이라면 다른 얘기가 된다. 이 경우 선생의 이동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안 움직이니까 당연하지. 수업시간이 1.5배가 되면, 할애되는 시간 역시 1.5배가 되므로 이 경우엔 굳이 에누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선생 쪽으로 와서 수업을 들을 만큼의 실력 있는 강사라면.. 페이 걱정은 안하는 수준일 것이다.

① 또한 대부분 학벌로 폐이가 메겨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정산법이다.

최근엔 사교육에서도 SK, 카르텔이 많이 사라졌고, 최근 1~5타 강사들을 보면 非스카이 출신이 상당히 많다.

학벌 순으로 수학 가르치기를 잘 한다면, 非스카이 출신의 선생님들은 스카이 출신 선생님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미 대학 입학 전부터 앞서던 스카이 출신 선생님들이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스카이 출신 선생님들을 누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일정 수준의 실력 이상이면, 그 이후부터 수업실력(=경험)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생 등급에서 3등급을 뺀 등급 이상을 받은 강사면 충분하다는게 나의 이론이다.

예를 들어 5등급 학생이면, 2등급을 받은 선생님이면 충분하다.

4등급 학생이면, 1등급 선생님이면 충분하다.

3등급 학생이면, 1등급 이상의 실력이 있는 쌤들 혹은 경험 많은 1등급 선생님에게 받기를 추천한다. (학생의 등급은 최근 3회 모의고사 평균등급)

예를 들어 학생이 4등급 이하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엔 서울대 의대 쌤이나 중경외시 공대 쌤이나 큰 차이가 없다. 수업료는 2~3배 차이가 나겠지만, 수업의 효과차이는 1.1~1.3배로 미미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까먹지 말자. 서울대 의대 쌤이 매우 뛰어나다면 3~4배 이상 효과차이가 날 것이며, 중경외시 공대 쌤이 매우 뛰어나고 의대 쌤이 평범하다면 효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폐이는 결국 ‘_____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라인을 잡아달라는 부탁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봤다.

경력 \ 학벌	평범	우수	뛰어남	비고 (경력)
전무	최저~1.5	1.5~	2~	학원알바부터 시작 추천
평범	1.5~2	2.5~	3~	과외 5명 이상
우수	2.5~	3~	5~	과외 10명 이상
뛰어남	경력은 학벌을 무시한다. 이 경지에 있는 강사들은 시급 조연 받으려고 본 자료를 읽진 않을 것이다. ㅇㅈ?			
비고 (학벌)	과외 지역 부근 대학 기준		숫자는 시급 기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그 돈을 초월하는 수업을 해주길 바란다. 후학들을 위해.

- 학생과 강사의 공합 (수학과목 한정)

① _____

② _____

Bonus Track 5. 과외 vs 학원 vs 독학
